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나는 셈, 함, 야벳 중 어느 족속인가?>의 줄거리 :

나는 셈족인가요? 아니면 야벳족인가요? 그도 아니면 함족인가요? 사실 인종학적으로 보자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셋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 본문은 인종학적인 관점과는 무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분류 방식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 분류 방식을 따르자면 나는 이제까지는 생애 거의 모든 시간을 함의 자손으로 살아온 셈입니다.

나는 셈, 함, 야벳 중 어느 족속인가?

(창세기 10:1~32)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에 대해 언급되고, 6~20까지는 함의 자손에 대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아들 야벳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아주 간략하게 소개됩

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나오는 중에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속담까지 생기게 한 영웅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영웅이 저주받은 함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지침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란 80억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언급되는 족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야벳 족속입니까? 함 족속입니까? 셈 족속입니까?

어렸을 때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 배우기를 야벳 족속은 백인들로 인도 유럽의 아리안족인 그리스, 로마, 인도, 파키스탄, 이란 쪽 사람들이고, 함 족속은 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 에티오피아, 남방의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함과 관련하여 가나안 아홉 족속과 블레셋, 시돈, 여부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흑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셈에 대해서는 히브리인들과 앗수르를 비롯한 근동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흑인들이 저주받은 삶을 산다는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부끄러움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수치에 대한 세 아들의 태도에 따라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서 분명히 해보자면 함은 부끄러움을 드러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자였고 자기와 아버지를 분리한 자였습니다. 한편 셈과 야벳은 부끄러움을 드러낸 아버지에게 접근해 나갔고 자기들과 아버지를 불가분리의 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문의 족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가까이 갔습니다. 한편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본문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해 세 아들이 보인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종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따라 인류를 구분하는 인종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막연하게 '나는 셈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본문에는 야벳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고, 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며, 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벳 족속과 셈 족속 전체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접근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함 족속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에서 떠난 자들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당시 알고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아 후손들의 이름과 족속들의 이름을 써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부끄러운 사건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인종학적 관점으로 보면서 '과학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멍청이들입니다. 또한 본문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인종학적으로도 본문이 하등의 모순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증명하려는 자들도 상 멍청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기록된 의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드러낸 노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던 세 아들에 대해 축복과 저주가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이 축복과 저주를 받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가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함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8~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에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니므롯이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워서 창대한 번영을 이루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노예가 되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노아가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야말로 무지의 절정으로써 흑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그

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부가 검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피부가 검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가르쳤고, 피부가 하얗게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작 백인들은 일광욕을 하며 피부를 태우지 못해 안달인데 백인들이 제일 복을 받았고, 우리가 그다음쯤 되는 것 같고, 흑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부끄러움의 사건은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도 노아가 하나님의 좋으심에 취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란 세상 것을 좋아하여 세상 것으로 옷 입고자 하는 나 자신을 잘못되었다고 번제로 죽이는 것이었고, 완전함이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만을 소원하여 하나님의 좋음에 취하면, 벌거벗음의 의미대로 이 세상의 좋음을 하나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좋음에 취한 자들을 세상이 볼 때 하나님으로 옷 입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좋음을 갖고자 하지 않기에 그 마음이 마치 벌거숭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벌거벗음의 부끄러움, 노아의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좋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좋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종을 피부의 색으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그 벌거벗음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의 차이에서 사람의 인종을 구분하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인종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함과 저주함에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은 종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셈 족속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건을 예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셈 족속은 이것을 마음속에서 내 것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족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란 인종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 족속이란 예수님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갖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야벳 족속은 셈 족속이 전달하는 부끄러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야벳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내려다보실 때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하는 자들이 야벳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서들은 이러한 본문의 의도를 놓치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족속은 나중에 언급되기에, 야벳 족속이 간단하게 언급된 것은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 부끄러움의 사건을 전달받을 자들이 월등히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벳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야벳 족속에 대한 언급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 족속을 보면 니므롯을 중심으로 어떻게 업적을 남겼는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 족속이나 셈 족속을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해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가 예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야기로 남길만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벳 족속과 셈 족속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내 몫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좋음이 아니라 하늘 좋음을 유일한 좋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하여 남길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명의하에 남길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볼 때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명의하에 기록될 만한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벳 족속이나 셈 족속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종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이와 대비되는 대표적 인물이 함 족속의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첫 용사라 일컬어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짐승을 잡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석서들의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므롯은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도록 인류를 설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벨탑을 쌓게 한 인물이 단지 짐승을 잡는 폭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

에도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덕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로 온 세상 사람들을 일치단결시켜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니므롯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이 족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면 잡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꿈과 비전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좋다는 상황입니다. 사냥꾼은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사냥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사냥할 짐승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꿈이든 비전이든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 좋음을 완전히 벗어버린 노아의 부끄러움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부터 내가 야벳 족속인지, 셈 족속인지, 함 족속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함 족속입니다. 이 세상의 좋음을 갖고 싶다면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듯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세상 좋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의 벌거숭이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흑인이 함 족속이 아니라 세상을 소원하는 자들이 함 족속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류를 분류하고 계심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까마귀파와 비둘기파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둘기파였습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로 분류되었음에도 그 속에는 여전히 까마귀파의 죄악의 체질은 남아있습니다. 결국 까마귀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 족속입니다. 인종학적으로 함 족속이 흑인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함 족속으로 열거된 사람들로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그 족보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인 중에도 함 족속이 있을 수 있고, 흑인 중에도 함 족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인종 중에도 함 족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인 중에도 야벳 족속과 셈 족속과 함 족속이 있을 수 있으며, 흑인 중에도 야벳 족속과 셈 족속과 함 족속이 있을 수 있으며, 아시아 인종 중에도 야벳 족속과 셈 족속과 함 족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어떤 족속일까요? IT산업에서 유명한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함 족속의 니므롯과 같은 탁월한 사냥꾼들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대신 스스로 삶을 결정하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냥하는 자가 바로 대적자인 니므롯입니다.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니므롯입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중에서 셈 족속의 특징은 부끄러움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에 있고, 야벳 족속의 특징은 셈 족속이 전달하는 부끄러움의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부끄러움은 세상 좋음을 싹 벗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인 셈과 야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좋음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좋음을 벗어버림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않고 세상 좋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받아들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셈은 부끄러움이 발생한 근원지에 속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사건을 전달받는 입장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럽의 백색 인종들이 야벳의 족속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달 받은 내가 야벳의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부활을 목도 한 오백여 형제들, 마가 다락방의 백이십 문도 등은 십자가 사건의 근원지에 있던 자들로서 셈 족속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셈 족속으로 여겼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 족속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 살았다고 해서 셈 족속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그렇게 인종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셈 족속에 속한 열두 제자나 오백여 형제들 혹은 백이십 문도 같은 이들에 의해 전달된 십자가 부끄러움의 사건을 받아들인 야벳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음을 향한 소원을 갖는 함 족속이었다가 야벳 족속이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 족속은 사냥꾼인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사냥꾼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 꿈, 비전, 희망 따위를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속담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대적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에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끄러움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좋음의 소원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야벳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사건은 완전히 내 사건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러한 여러분은 셈 족속이 됩니다. 함 족속에 속했다가 야벳 족속이 되고 셈 족속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제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이들은 야벳 족속입니다. 누가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함 족속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여 야벳 족속이 되었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전파하는 셈 족속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함 족속에서 출발하여 야벳 족속이 되었다가 셈 족속이 되어서 전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인종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사건은, 하나님의 좋음에 취해서 세상 좋음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술에 취하게 하시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시는 기준을 제공하십니다.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은 세상 좋음을 벗어버린 부끄러움에 접근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함 족속은 벌거벗은 부끄러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 좋음을 사냥하며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악으로부터 시작한 까마귀파이고 사탄의 언어 체계를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비둘기파에 속한 노아의 자손임에도 그 속에 담긴 죄악의 체질로 인해서 함 족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야벳 족속은 부끄러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좋음을 벗어버리는 벌거숭이가 되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기어코 완전함에 이르러 하나님만을 좋아함이 자리를 잡으면 셈 족속이 되어서 또 다른 야벳 족속에게 부끄러움의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함 족속인지 야벳 족속인지 셈 족속인지는 외모나 피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문은 노아로부터 시작한 새 인류의 종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몽골인들, 동남아시아인들을 비롯한 인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아리안족도 되고 아랍 쪽도 되고 아시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족보를 통해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말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함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야벳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까지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부끄러움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전하는 셈 족속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좋음을 느끼고 소원대로 추구하는 함 족속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야벳 족속이 되고 다시 셈 족속이 되는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 족속으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억울한 한탄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이제 하늘에서만 좋음을 추구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좋음을 추구하는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나도 셈 족속이 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된 부끄러움의 십자가 사건을 야벳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